**JR 고노선 - 고이리강 철교**

고노선은 아키타현 히가시노시로역에서 아오모리현 가와베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47km의 철도입니다. 노선의 대부분은 일본해(한국 동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 한쪽은 바위투성이 해안선을, 또 다른 한쪽은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의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산 정상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노선을 달리는 특별열차 ‘리조트 시라카미’는 커다란 차창이 있어 단순한 전철 이동을 다채로운 지역 여행 체험으로 바꿔 주는 다양한 특징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시라카미에는 3종류의 차량 편성이 있습니다. 시라카미 산지 생태계의 중심인 너도밤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녹색 열차 ‘부나’, 주니코역 근처의 감청색 호수에서 이름을 따온 푸른색 열차 ‘아오이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붉은 볏이 있는 검은색 딱따구리인 까막딱따구리에서 이름을 따온 붉은 줄무늬가 있는 열차 ‘구마게라’입니다.

각 열차는 여유 있는 3량의 보통차와 박스석을 갖춘 차량 1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스석의 각 칸에는 중앙 테이블이 있으며, 좌석은 풀 플랫으로 만들 수 있어 승객이 신발을 벗고 다리를 뻗을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아키타산 삼나무 등 현지 목재가 깔려 있고 전망실에서는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거나 지역 공예품이 전시되기도 합니다.

공연에는 샤미센(전통 현악기)으로 연주되는 라이브 연주, 지역 방언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아오모리의 전통 인형극 등이 있습니다. ‘부나’에는 토속주를 맛볼 수 있는 바(Bar)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열차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JR 동일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승객들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차는 느긋한 속도로 운행됩니다. 경승지에서는 승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더 감속합니다. 노선상에 있는 많은 관광 명소 중에 항구 도시인 노시로시가 있습니다. 농구 강호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이 학교는 일본 전국대회를 55회 이상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노시로역 홈에는 농구 골대가 있는데, 슛을 넣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라카미 산지 너도밤나무 원생림을 방문하려면 핫포초에 있는 역에서 가는 것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립니다. 그곳에서는 하이킹과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핫포초의 아키타시라카미역에서 북쪽으로 두 정거장 가면 주니코역이 있습니다. 주니코역에는 언덕으로 둘러싸인 33개의 호수와 늪이 있으며, 이 호수와 늪은 1704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푸른 연못’을 뜻하는 ‘아오이케’는 이 중에서 가장 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흐린 날에는 선명한 푸른색이 짙은 남색으로 변합니다. 연못 부근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하이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역에서 연못 근처까지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만, 3월 말부터 11월까지는 도로가 통행금지 됩니다.

리조트 시라카미는 전석이 지정석이며, Ekinet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차의 ‘A’석과 모든 박스석에서는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바다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료 Wi-Fi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차량 금연입니다.